

비상대책위 특보

제 152호

2012년 9월 10일 (월)

MBC 사태 방치하려는 세력에 경고한다

'언론 정상화'와 '법치주의'는 원칙과 정도(正道)의 문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오는 27일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위원장을 불러 MBC 사태와 관련해 각각 별도의 의견 청취를 갖기로 결정했다. MBC 사태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 자리다. 조합은 방문진의 결정이 MBC 정상화에 대한 우려와 불투명성을 일소하고 김재철 처리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건설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를 고대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물론 방문진의 향후 일정이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택함에 따라 김재철 측에게 사태를 악화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김재철 처리'에 대한 향후 일정이 예측 가능하게 된 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방문진의 비리 비호는 국법질서 부정

조합은 동시에 9명의 방문진 이사들이 이제부터라도 MBC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정파적 편견과도 결별한 채 지금 MBC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자세로 직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재철 처리 문제는 결코 보수와 진보, 여야의 잣대로 편을 나눠 시비를 벌일 수 있는 정치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선임 과정 자체부터 불법의 소지를 안고 MBC 사장이 된 김재철은 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반 동안 사규와 단체협약은 물론 중대한 실정법 위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해온 범죄 혐의자다. 무용가 씨와의 특수 관계를 몸통으로 한 배임 의혹 외에도 조합원들의 전자 통신에 대한 무차별 불법 감청과 사찰 의혹으로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범이다. 방문진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의 일부본인 방문진 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적 기관임을 감안할 때 방문진 이사들이 이처럼 현재진행형인 불법과 범죄 혐의자를 감싸거나 비호하는 인상을 주는 일은 결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흡사 난동을 부리고 있는 폭력배와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법천지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BC 사태 정치적 계산 세력에게 경고

나아가 우리는 최근의 MBC 사태를 방치하면서 정치적 반사이득을 노리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력들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상화, 실종된 공정보도의 복원과 현재진행형인 비리혐의자의 단죄는 결코 정치적 이해타산의 기준으로 주판알을 튀기면서 그 득실을 계산하며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의 하나 MBC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 향후 자신들의 정치적 일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김재철의 불법과 전횡을 방치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를 맡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MBC 사태에서 보인 입장 심판받게 될 것

현재 진행형인 불법까지도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방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 대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태의 매듭을 풀고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는 MBC 구성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켜볼 중대 사안임에 분명하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MBC 사태를 방치했는지, 아니면 언론의 정상화와 법치주의라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는 그리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전모가 드러나 국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MBC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 있는 기관과 인사들은 다시 한 번 MBC 사태를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 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으로 경영판단 및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한다"는 6월 29일 국회 합의에 담긴 초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방문진의 27일 의견 청취 결정이 6월 29일 합의 실천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현업 근무 기자PD 4명 등 28명 교육명령 폭거

프로그램 투쟁 말살하려는 김재철의 비열한 보복

김재철이 2차 대기발령을 받은 조합원 24명에다 현업 근무 중이던 기자와 PD 4명을 합쳐 모두 28명에게 잠실 MBC 아카데미 교육 명령을 내렸다. 이로 교육명령을 받은 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48명의 조합원이 본사에서 격리돼 보복 교육의 대상이 된 것이다.

대기발령자 24명에 기자 PD 4명 추가 특히 이번 교육명령은 대기발령자 외에도 업무 복귀 이후 제작 현업에 임하고 있던 4명의 기자와 PD까지 포함시켜 김재철의 악랄한 보복인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현업 근무 중 교육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사제작국의 고현승, 김희용, 전영우 기자, 교양제작국의 임남희 PD 등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지난 달 진행된 해당국의 국장 정책 발표회에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조합원들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고현승, 김희용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 심원택 부장의 폭언 목격 사건 당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자들을 대표해 김현중 국장을 면담한 적이 있다.

관련 국 부장, "나는 모르는 일"발행 전 구성원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이들 4명에 대한 교육 발령과 관련해 담당 국장과 부장들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현중 시사제작 국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면서 "기자들의 발령은 보도 쪽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고현승, 김희용 기자가 소속된 시사제작 2부의 심원택 부장은 "고현승, 김희용 기자와는 같이 일을 못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인사이동을 권재홍 보도본부장,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에게 건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발령까지 낼 줄을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부측은 이들의 교육 발령과 관련해 "R을 받은 직원은 인제는 교육에 처할 수 있다"는 답변 외엔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데없이 4명만 찍어서 교육 발령을 내놓고서는 그 누구도 납득할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느낀 김재철의 비열한 보복 김재철은 보복 교육명령 외에도 구성원들의 연가투쟁을 놓고 안택호 미래전략실장과 갈등을 빚은 양찬승 미래전략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폭거도 함께 저질렀다.

조합은 이번 사태를 업무 복귀이후 활기차게 진행돼 온 구성원들의 프로그램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교활한 보복 인사로 규정한다. 프로그램 투쟁의 열기를 차단해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와 저항이 보도국 등 다른 현업부서로 확산되는 일을 차단하려는 비열한 노림수인 것이다. 동시에 김재철 측이 최근 MBC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일체의 건설적 의견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9월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간부들의 동요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조합은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번 2차 교육명령 폭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김재철 일당의 죄상을 온 국민 앞에 알릴 것이다.

김재철의 황당한 보복교육 합리화, "배울 건 배워야"

6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한 김재철의 황당한 답변이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재철은 이날 이사들의 질문에 "MBC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잠실 아카데미로 쫓아내 보복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 조치에 대해 김재철은 "상벌이 명확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다"며 보복성 교육을 합리화했다. 김재철은 "연차가 높아도 브런치 말고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면서 "나도 지금 이사들한테 혼나면서 배우고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유용은 아랫사람 탓하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랫사람 탓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이사는 "김 사장은 내내 아랫사람을 탓했다. 비서가 월 1억 원 법인카드라고 하길래 쓰고 다녔다고 말했다. 지역MBC 사장 시절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했는데(서울MBC에서는) 비서가 증빙 서류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재철은 또 "돈과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떼똥한 사람이다. 수사 결과가 빨리 발표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은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은 PD수첩 해고 사태에 대해서도 해고가 아닌 교체라면서 '임원진 회의에서 국장이 교체했다고 보고를 받아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발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방문진 이사들은 무용가 씨와 일본의 한 호텔에서 투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 관계 차 출장을 갔다는 김재철의 해명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연가투쟁 연기, 오늘 긴급 대의원 대회

방문진 결정에 맞춰 투쟁 계획 수정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MBC 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이 긴급 대의원대회로 전환됐다. 노동조합은 9월 6일(목)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 사회의 결정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27일 의견청취는 MBC 정상화의 최종단계

방문진은 6일 이사회에서, 오는 27일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MBC 정상화를 위한 노사양측 긴급의견청취'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긴급 의견청취는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청문회로서, MBC의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단계의 중대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방문진 결정의 의미 평가

노동조합은 총파업 중단 이후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MBC 정상화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4일 총회를 통해 연가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문진에서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MBC 정상화 일정 결정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정을 존중하기로 긴급 집행부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최고수위 투쟁 결의

그러나 앞으로도 사측의 비열한 순연작전과 MBC 정상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의 방해가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노동조합은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오늘 개최될 대의원대회에서는 방문진의 향후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교란되거나 MBC 정상화에 대한 오만이 작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고수위의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진의 일정과 상관없이 현재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김재철 측의 해사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차원의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며, 특히 심각한 불법 도발임이 드러나고 있는 '트로이카트 프로그램 사찰' 문제에 대한 강력한 투쟁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방문진 감사를 촉구



감사원은 국회의 결의에 따라 MBC의 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시민 사회단체들이 촉구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MBC 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금) 낮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신속하게 착수, 완료돼야

언론 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망가진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는 시청

자들과 시민 사회의 심정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제한 뒤 감사원은 MBC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방문진과 김재철 사장의 책임을 철저히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연대는 지난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55일 만에 완료한 일을 들어 KBS보다 조직과 예산 규모가 작은 MBC에 대한 감사는 55일 보다 더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한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 MBC가 어떻게 붕괴됐고 논문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재우 씨가 이사장에 연임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MBC는 진흙탕에 빠져있다"며 "감사원은 같이 진흙탕에 빠질 것인진 진흙탕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것이기에 서있다"는 말로 감사원이 성역 없는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법 감청, 사찰 다른 <서늘한 간담회-호의>업로드

김재철 일당의 무차별 불법 감청과 사찰 파문을 파헤친 파업채널 M의 팟 캐스트 방송 <서늘한 간담회-호의> 편이 6일 업로드 됐다.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에 따라 <서늘한 간담회> 제작진은 김재철 퇴진을 기념하는 특별 방송을 할 때 까지 방송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최근 MBC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김재철 측의 무차별 불법 감청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방침을 바꿔 긴급 호의 편을 제작했다.

긴급 호의 편은 김재철 측의 충격적인 불법 감

청에 대한 분노로 인해 업로드 직후부터 많은 관심 속에 청취되고 있다. 트위터에는 "방송국인가? 교도소인가?" "조지 오웰의 <1984>나 다름 없다"는 네티즌들의 청취 소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늘한 간담회-호의>편은 불법 사찰 파문 외에도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와 격리 교육 발령 등 업무복귀 이후 김재철 측이 자행한 야비한 탄압 사례들을 망라했다.

MBC, 충성심은 권력이 아닌 시청자에게 보이라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사태에 항의하는 드라마 작가들의 릴레이 기고 두 번째 순서로 배우미 작가의 글을 게재합니다. 1996년 데뷔한 배우미 작가는 MBC 인기 드라마 <로망스>, <위풍당당 그녀>, <반짝반짝 빛나는>을 집필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글의 일부만을 실습니다. 배우미 작가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 우리는 방송작가다. 드라마작가는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교양작가는 시청자에게 상식과 정의를 선사한다. 픽션과 논픽션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담아 시청자와 소통한다. 한쪽은 믿고 싶은 구라를 풀고, 한쪽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풀고, 한쪽은 시름을 잊게 하고 한쪽은 시름을 없게 하고, 한쪽은 위안을 주고 한쪽은 각성을 준다.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동력으로 방송은 시청자를 태우고 부지런히 1m 앞으로 1분 후로 미래로 굴러가는 것이다. 드라마작가들은 안다. <PD수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것. <2580>이, <불만제로>가, <백본토론>이 견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타입슬립을 하고,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고, 나쁜 놈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압에 굴하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20년 세월을, 그 세상을 지키고 있는 <PD수첩>의 작가들이 있었기에 그동안 양껏 상상하고 맘껏 드라마를 쓸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의 견제가 우리의 견제라는 것! 이번엔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한 개인은 미약하지만 문진 우리는 미약하지 않다.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심지를 모아 해고된 작가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시청자만이 방송의 상수임을 명심해야

그리고 MBC에 촉구한다. 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사장의 것인가? 대통령의 것인가?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대통령 후보의 것인가? 방송은 명명백백 시청자의 것이다! 사장

도 대통령도 임기가 있지만 시청자는 임기가 없다. 그야말로 종신이다. 충성심은 시청자에게 보여야 한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언제 바뀔 지도 모르는 사장에게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권에 기대지 말고, 늘 확실한 시청자에게 매달리고 기대야 한다. 왜 자꾸 시청자는 안 보고 엉뚱한 데를 보는지 모르겠다. 정권은 변수지만 시청자는 상수라는 걸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늘 옳은 우리의 시청자들은 MBC의 <대장금>을 사랑하는 것만큼, MBC의 <PD수첩>을 사랑스러워한다. 40%를 넘기며 큰 석 달을 뜨겁게 달군 <해를 품은 달> 못지않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20년을 뚜벅뚜벅 걸어온 <PD수첩>의 독심을 든든해하고 응원한다. 오로지 MBC의 수뇌부들만이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창피해한다. 누가 뭐래도 <PD수첩>은 MBC의 간판 프로이고, 이 프로의 PD와 작가는 대한민국 방송의 국가대표 선수다. 사력을 다해 피땀 흘려 메달 따온 선수를 남보다 먼저 내치고 나 몰라라 한 개념 없는 축구협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MBC가 가장 잘 하는 프로그램도 없애고, 방송3사에서 가장 잘 한다고 잘 쓰는 PD와 작가도 없애고, 도대체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 생각이 똑같은' 새 작가들과 새 PD들로 무얼 하겠다는 건가? 애당초 편향적이지 않고 생각이 똑같은 인간이 한 게 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PD수첩>을 식물화해 종국엔 없앨 계산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해고된 작가들을 현장으로 불러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 이들 작가들의 복직과 <PD수첩>의 복귀로부터 MBC는 분위기 쇠신을 해야 한다. 시청자들이 지켜 보고 있고, 역사가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

<작가>가 뭐지, 알려주마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사태에 항의하는 드라마 작가들의 릴레이 기고 세 번째 순서로 노희경 작가의 글을 게재합니다. 노희경 작가는 <빠담빠담...> <그들이 사는 세상> <굿바이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등 많은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이지만, 나는 나를 가르친 지난 날 스승들에게 일침을 가하려한다. 모든 스승들이여, 당신들의 죄는 실로 막중하다. 초등시절부터 작가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던 내게, 지난날의 스승들은 참으로 허망한 말을 일삼아 나를 기고만장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모멸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자멸을 복돋고, 살아있음을 염치없이 하였다.

작가는 현실을 안주하는 시대에는 끝없는 탐험가여야하며, 풍요로운 시대를 믿지 않는 그리스 공평의 신처럼 만족을 모르고 낮은 자 속에서 허덕여야하고, 창조주도 부러워할 창조를 해내야하며, 작가품속에선 등장인물의 생생까지 관찰하니 이유 불문 삶과 죽음 미처 통찰해야하고, 전시엔 중군기자처럼 죽어가는 동지들의 사체위에서도 절대로 울분에 따라죽지 않고, 낱알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대에 알려야 하며, 약한 자는 거꺼이 변호하고, 칼 앞에서도 펜을 꺼내들기 두려워말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작가에게는 모르나, 적어도 나에겐 그 모든 작가의 역할들이 감당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소소한 사랑 따위, 괜한 울분에 차도 아랑가 가능한 그 애에게 집착하는, 시대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한 판타지가 용납되는 이라가 작가 되었다. 좌절감을 없앴나? 피해갈 수 있었다. 오직 나의 다른 동료들 덕분에. 그 동료 가운데 피디수첩의 작가 여섯이 있다. 나는 대개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줄 테니마음을 달랜다. 시간이나 뻗으면서, 그대들은 칼에 맞서 펜을 꺼내들라, 나는 그들을 작금의 사태로 내몬 또 다른 장본인이다.

권력 앞에 펜을 든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겠다 피디수첩 작가 일팔이고를 든 날, 나는 새 작품을 집필하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어느 누군가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 되는 글을 양산하고 있다. 화려한 배우의 뒤에 숨어, 시대의 슬픔을 가릴 황홀한 눈거리며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 내가, 이 순간 내 글을 읽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명분 없는 작가 질을 하는 나를 대신해 권력 앞에 펜을 든 동료들에게 마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나는, 작가는 <작>심하고 시대를 <까>는 직업임을 엄중히 알린다. 하여, 이네들은 김재철, 노무현 정부 때에도 쉽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줬고, 현 이명박 정부도 본연의 임무를 다해 <갈> 뿐인 것이다. 따라서 왜 가냐는 말은 옳지 않다. 살살, 적당히, 아프지 않게 까라는 말도 그릇되다. 재도 까라, 나눠서 까란 말도 어리광이다. 다만 까인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고민하는 게 맞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실 알아야 권력의 영원은 없다. 단언컨대 나는 후배들에게 약할히 이 자리 빼앗길 것이며, 지금 권력을 든 자 그대들 역시 현재의 자릴 처절히 빼앗길 것이다. 현재를 지키려 무덤 뜯게 파는 일은 의미 없다. 우후죽순, 작금의 사태를 잘 작가들이 자라는 때문이다. 조심해라. 새로운 권력자들이여, 무서운 고사리장마다 고사리 같은 작가들이 천차사방터를 잡고 자라나고 있다. 절대 제어할 수 없다.